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안락사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와 같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좋은 죽음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좋은’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과 같이 도덕 논의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② (가): 도덕 문제에 대한 가치 중립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③ (나): 도덕 추론의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④ (나):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은 삶의 핵심인 동시에 삶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먼 훗날의 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실천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기술이 주는 윤리적 새로움이다. 책임은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윤리학적 범주를 의미한다. 새로운 윤리학은 새로운 질서, 즉 기술의 거대 권력을 반영해야 한다.

- ① 악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선의 탐구에 유익할 수 있다.
 ② 책임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존재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나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윤리적 숙고 대상에 포함된다.
 ④ 자연과 다르게 미래 세대와 현세대는 호혜적 책임의 관계이다.
 ⑤ 전통 윤리학의 규범을 모두 배제해야 인류의 존속이 가능하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더 이상 감각을 지니지 않는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고 죽음은 감각의 박탈이므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 삶의 필멸성도 즐길 수 있다.

을: 영혼이 몸에서 풀려나 분리되는 것이 곧 죽음이다. 몸은 영혼을 혼란에 빠뜨려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눈과 귀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유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갑: 불멸에 대한 믿음은 합리적 사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② 갑: 영혼이 몸을 떠나면 영혼의 수행 능력 변화는 불가피하다.
 ③ 을: 무절제한 삶은 죽음에 대한 바른 견해의 획득을 방해한다.
 ④ 을: 죽음 이후에는 모든 영혼이 이데아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⑤ 갑과 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지 않는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신경계 질환 환자는 BCI*의 도움을 받아 뇌 활동만으로도 신체 보조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BCI는 신경계 질환 환자의 신체 기능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을: 동의합니다. 나아가 의료 재활을 넘어 인지·감각 등 다양한 능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BCI 활용도 허용해야 합니다. 인간은 BCI를 활용해 각자의 의도에 맞게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습니다.

갑: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BCI를 활용하면 인간의 의식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BCI로 강화된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어 자율성을 위협받으므로 BCI는 의료 재활의 목적으로만 허용해야 합니다.

을: BCI로 인해 인간의 의식이 기술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BCI를 통해 향상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BCI(Brain-Computer Interface): 뇌와 컴퓨터 등을 연결하는 기술

- ① BCI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하는가?
 ② BCI가 인간이 갖는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한가?
 ③ BCI는 의료 재활 외에도 능력 강화를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가?
 ④ BCI로 인해 인간이 기술에 의존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가?
 ⑤ BCI를 통한 강화로 개인이 지니는 능력이 변화될 수 있는가?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신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을: 일반 의지만이 국가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일 뿐 이기에 결코 양도될 수 없다.

< 보 기 >

- ㄱ. 갑: 자연 상태의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집행권을 지닌다.
 ㄴ. 갑: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 계약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ㄷ. 을: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는 정부는 주권을 지닐 수 있다.
 ㄹ. 갑과 을: 자기 이익 추구는 사회 계약을 체결하는 동기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의 장이다. 국제 정치에서 군사력은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수단이다.
을: 평화 연맹은 그 연맹에 참여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이 연맹이 모든 국가로 점차 확대된다면 영구 평화라는 이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 ① 갑: 타국과의 세력 균형 추구가 자국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 ② 갑: 국제 사회는 어떤 법칙도 존재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이다.
- ③ 을: 평화 실현 전에는 가입국의 평화 연맹 탈퇴가 불가능하다.
- ④ 을: 각국의 주권을 국제법에 복속시켜야 영구 평화가 유지된다.
- ⑤ 갑과 을: 국가의 행위 동기를 인간 본성에서 도출해서는 안 된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 산업에서 영화들 사이의 차이, 잡지들 사이의 차이는 본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장악하기 위한 차이에 불과하다. 문화 산업의 상이한 예산 배분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의 편차는 생산물의 실제적 가치나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가치의 유일한 척도는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또는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가에 달려 있다.

- ① 문화 산업의 확산으로 상품이 규격화될 가능성이 사라진다.
- ② 문화 산업은 예술이 소비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막는다.
- ③ 문화 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 ④ 문화 산업의 속성은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위축시킨다.
- ⑤ 문화 산업에서 상품 가치는 경제적 효용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계약론의 한 예이다. 합의의 내용은 어떤 도덕 원칙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약속은 순수하게 가상의 것으로서, 어떤 도덕 원칙들이 적절한 최초의 상황에서 채택될 것이다. 정의의 원칙들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바로 이 평등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 보 기 >

- ㄱ. 정의의 원칙들 간에는 경중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택되는 서열이 존재한다.
- ㄴ.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려는 합의는 원초적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ㄷ. 원초적 상황에서 자기 이익 증진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계약의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 ㄹ.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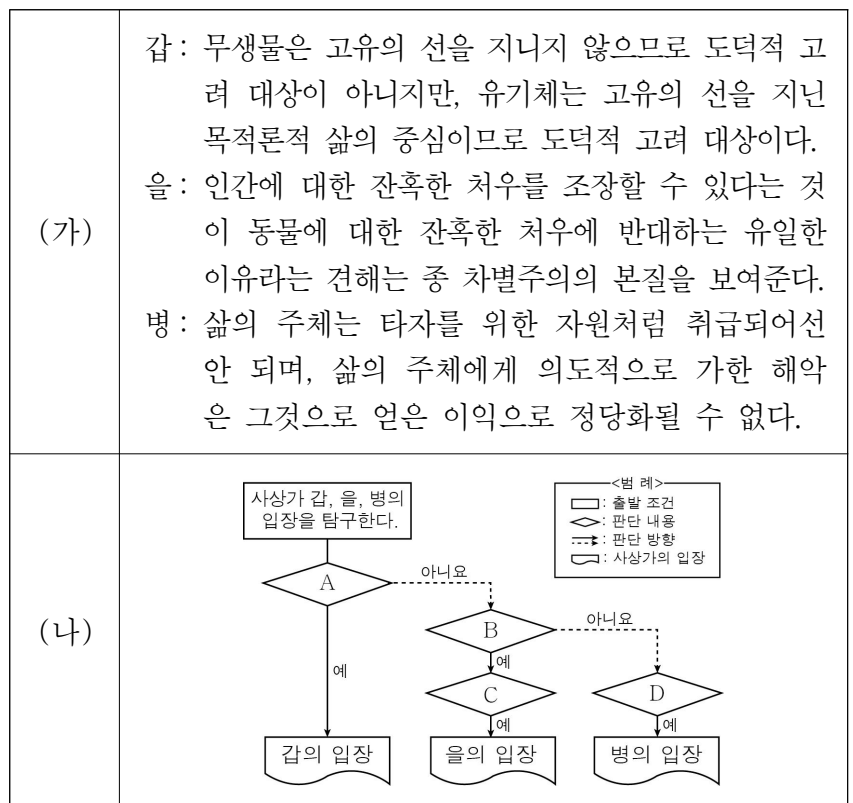
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룩한 것의 현현(顯現)은 공간의 균질성을 깨뜨리며 존재론적으로 세계를 창건합니다. 종교적 인간에게 거룩한 공간의 발견은 세계를 창건하게 하고, 참다운 의미에서 그 세계에 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실존적 가치를 가지게 합니다. 비종교적임을 자처하는 사람에게도 탄생지, 첫 여행지와 같은 장소는 그의 사적(私的) 우주에 있어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비종교적 인간에게서도 종교적 행위의 예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 ① 세속적 공간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공간으로 전환될 수 없다.
- ② 신성성을 드러낸 사물이 세속적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비종교적 인간은 모든 공간을 균질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 ④ 세속적 공간의 비종교적 인간은 어떤 종교적 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 ⑤ 종교적 인간에게 거룩한 공간에 대한 지향과 현실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욕망은 모순이 아니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A: 생명을 지닌 개체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가?
- ㄴ. B: 인간과 동물에 대한 서로 다른 대우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ㄷ. C: 왜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의 행위가 도덕 판단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가?
- ㄹ. D: 도덕 행위자와 도덕 무능력자는 동일한 본래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적 가치는 욕구의 대상 일체를 고려함 없이 행위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의지의 원리’에 달려 있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인 A는 용돈을 받으면 선물을 사 주기로 동생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영상을 본 후 안타까움을 느껴, 그들을 돕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 용돈을 기부할지 동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동생과의 약속을 포기해야만 이해 당사자의 행복이 극대화됨을 명심하세요.
- ② 연민이 아니라 실천 이성의 강요에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됨을 명심하세요.
- ③ 기아 해결에 부합하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지님을 명심하세요.
- ④ 기부는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됨을 명심하세요.
- ⑤ 타인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칭찬받을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하여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을: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보 기 >

- ㄱ. 갑: 시민 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을 위반하면서 행사될 수 있다.
- ㄴ. 갑: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 외에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가 있다.
- ㄷ. 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없다.
- ㄹ. 갑과 을: 다수의 견해에 명백히 일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0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고 정보를 검색, 공유할 수 있는 기기이다. 실시간 통역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창작 활동을 촉진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스마트 안경의 활용 가치가 크다. 그러나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 수단이 될 수 있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작동 표시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 안경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 ① 스마트 안경 활용을 통해 언어 소통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
- ② 스마트 안경의 유용성이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 ③ 스마트 안경은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 ④ 스마트 안경의 활용은 저작권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스마트 안경 작동 여부의 공개는 각 사용자에게 일임해야 한다.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이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의(正義)이고, 각 계층 간의 상호 참견과 역할 교환은 불의(不義)이다. 세 계층이 각자의 본분에 맞는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된다.

을: 항산(恒産)이 없어도 항심(恒心)을 지니는 것은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선비는 곤궁한 상황에 처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기에 자족할 수 있고, 출세해도 도(道)에서 떠나지 않기에 백성의 신망[望]을 잃지 않는다.

- ① 갑: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분을 나누어야만 정의가 실현된다.
- ② 갑: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특정 계층만 지니고 있는 덕이 있다.
- ③ 을: 왕도를 실현하려면 선비가 육체노동까지 분담해야 한다.
- ④ 을: 출세하여 명성을 얻은 선비가 도를 따르는 경우는 없다.
- ⑤ 갑과 을: 생계유지는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성공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혹은 상호 이해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가 구별된다. 담론 참여자가 자신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 부른다. 이때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주관적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 ①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논쟁적 대화를 거부하여 강제되지 않은 합의에 도달하게 한다.
- ②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규범의 준수 과정에서는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없다.
- ③ 담론을 통한 합의의 구속력은 담론 과정에서 참여자 간 평등한 관계를 전제할 때 가능하다.
- ④ 담론 참여자들이 주관적 행위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상호 간의 행위 계획 조정은 불가능하다.
- ⑤ 주관적 행위 원리의 보편화 가능 여부는 상호 주관적 인정과 무관하게 개인의 이성적 판단에 의존한다.

1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오늘은 너에게 참된 예술에 대해 말해 주고 싶구나. 참된 예술은 모조 예술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감염력이라네. 다시 말해 작품을 감상한 어떤 사람이 예술가 그리고 작품을 감상한 타인과 일체가 되는 영혼의 상태를 체험한다면 그 작품은 참된 예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참된 예술이 아니란다. 예술의 감염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전달되는 감정의 독특성, 감정 전달의 명료성, 예술가의 진실성이라네. 예를 들면 민중 예술은 예술가의 진실성을 지니고 있어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지만 상류 계급의 예술은 그러한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단다.

- ① 예술가의 진실성이 예술의 감염력을 위한 조건일 수는 없다.
- ② 참된 예술로 예술가와 관객 간의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된다.
- ③ 예술로 전달되는 감정이 특수할수록 모조 예술에 가까워진다.
- ④ 예술의 가치는 예술의 감염력과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⑤ 상류 계급의 예술은 민중 예술보다 높은 감염력을 갖고 있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군자(君子)가 본성으로 삼는 바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이며 이는 마음에 뿌리박혀 있다.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까닭은 그 마음에 두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을: 진인(眞人)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으며, 마음은 본래 마음으로 되돌아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진인은 인위적인 행위로 자연의 변화에 참견하지 않는다.

- ① 갑: 측은지심은 군자뿐만 아니라 소인도 본래 지닌 마음이다.
- ② 갑: 사람은 본심을 온전히 실현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있다.
- ③ 을: 본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옳음과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
- ④ 을: 성인의 경지에 이르면 감정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갑과 을: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

18.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의 범위는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로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 간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에서 해악 금지 외에 추가적인 도덕적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을: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에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랑하는 부부의 성적 관계만이 정당할 수 있다. 성적 관계의 정당화 조건을 자율성 존중과 해악 금지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오해이다.

- ①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는 도덕적 제약이 수반되는가?
- ② 사랑은 성적 관계의 정당성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인가?
- ③ 생식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적 관계가 비도덕적일 수 있는가?
- ④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성적 관계도 부당할 수 있는가?
- ⑤ 부부의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입법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 없다. 범법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을: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공공 의사의 표현인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 보 기 >

- ㄱ. 갑: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가 공적 정의에 위배될 수 있다.
- ㄴ. 갑: 사형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동의에 근거해 사회 계약에 포함된다.
- ㄷ. 을: 형벌이 시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형벌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 ㄹ. 갑과 을: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는 자유적 만민의 사회가 수용할 동일한 만민법을 수용할 것이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확립이다.

을: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없다. 빈곤한 아프리카인이 유럽인보다 음식을 더욱 필요로 하는데도 원조에 있어 유럽인을 아프리카인보다 우선하는 것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 보 기 >

- ㄱ. 갑: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가 아니어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ㄴ. 갑: 자유적 만민의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모든 정의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한다.
- ㄷ. 을: 원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조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원조의 의무에 어긋난다.
- ㄹ. 갑과 을: 원조 의무의 이행은 원조 대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